
국 외 출 장 보 고 서

2019. 9



기술사업단
기술영업실

목 차

1. 출장목적	3
2. 출장일정 및 세부내역	3
3. 출장업무 주요내용	4
4. 출장 소감	8

1 출 장 목 적

- ☐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Gastech 2019에 참석하여, 해외기업들의 LNG사업 전망, 최신기술 동향 등 다양한 정보수집을 하고자 하며,
- ☐ 참여업체 방문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공사의 수행역무, 전문 기술력 등을 소개 및 홍보하고 향후 관련사업 참여방안 협의 등 영업활동을 하고자 함.

2 출 장 일 정 및 세 부 내 용

- ☐ 출장기간 : 2019. 9. 16(월) ~ 9. 22(일)* [4박 7일]

* 귀국시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편 변경으로 1일 지연 도착함

- ☐ 출 장 지 : 미국 (휴스턴)

- ☐ 출 장 자 : 총 5명

- | | |
|---------------|--------|
| ○ 임 원 | 이사 임규혁 |
| ○ 기술영업실 | 실장 박상환 |
| ○ 기술영업실 영업총괄팀 | 팀장 신동현 |
| | 대리 최 욱 |
| ○ 설 계 처 전기설계부 | 부장 문황욱 |

1. Gastech 2019 개요

- ☐ 개최지 : 미국 휴스턴
- ☐ 스폰서 : Exxon Mobil, Shell, Tellurian, Venture Global LNG 등 43개사
- ☐ 전시회 구성 :
 - Conference : Plenary, Strategical, Technical* 및 Specialist Programme으로 구성
 * Technical Delegate 등록으로 Technical Programme 청취
 - Exhibitor : KOGAS 등 약 700 개사
 - 전시관 구성 : 대한민국/미국/남미/독일/프랑스/이태리/인도/중국/일본/싱가폴 등 총 10개 섹터로 구분
- ☐ 주요 사항 :
 - 전세계 700여개 가스 관련업체, 약 35,000명 참가함
 - 가스 및 LNG, IT 및 디지털 인프라, 플랜트설비, 배관관리, 천연가스차량, 해양설비, 신규 기자재 장비 등 전시됨
 - KOGAS는 부스 마련(전체 Exhibitor중 최상위 규모)하여, 동반성장관 및 WGC2021 홍보관 운영함
 - 국내 대형 EPC사로는 조선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및 세아그룹이 대형부스 운영함
 - 국내 중견업체로는 보냉재 전문업체(강림, 한국카본) 및 밸브 전문업체(코발, 삼진) 등이 부스운영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 진행함

2. Gastech 2019 영업협의 사항

□ (미국) C社

○ 협의내용 :

- 미국 기반 에너지 장치 공급업체로 주로 Small LNG Tank/ISO Tank Container/Vaporizer/Fueling Station/Marine Cargo/Fuel Tank 등을 공급하고 있음
- 우리공사와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한 업체로, 미국/캐나다 및 남미 지역의 LNG사업에 대해 지속 협력하기로 함

□ (미국) Q社

○ 협의내용 :

- 미국 기반 Electric Power, Pipeline, 산업 및 통신분야 인프라 구축 전문 종합건설회사로 약 200개 이상의 자회사 및 40,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내 LNG Export 터미널 개발사업을 검토중으로 우리공사의 LNG터미널 및 저장탱크 설계역량에 대해 소개함
- 향후 관련사업 추진시 적극 협조하기로 함

□ (미국) M社

○ 협의내용 :

- 미국 기반 LNG, 저온 터미널(탱크 포함) EPC 업체로 우리공사와 사업영역이 상당부분 유사한 업체임
- 액화기술 관련 관심을 표명하여 우리공사의 Small-Scale 액화기술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향후 상호간 기술 교류 및 사업 협력을 논의기로 함

□ (프랑스) T社

○ 협의내용 :

- 프랑스 기반 세계 플랜트 시장의 선두 업체로, 우수한 Engineering 능력을 기반으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수행가능한 종합 EPC 업체임
- Vendor List에 우리공사 등재 가능여부를 타진하였으나, 프로젝트별 등재(필요시 요청)가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접수함
- 향후 사업 수행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프랑스) E社

○ 협의내용 :

- 프랑스 기반 저장탱크, 압력용기 및 해양구조물 전문 EPC 업체임
- LNG, 저온탱크의 경우 러시아 야말 LNG, 프랑스 덩케르크 LNG 등 유럽내 EPC 수행 실적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유럽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나 향후 상호간 영업 및 사업 협력을 모색기로 협의 함

□ (덴마크) C社

○ 협의내용 :

- 덴마크 기반 토목/교량 전문 EPC 업체로 다수의 LNG, Oil, Petro Chemical 터미널의 Jetty/Berth 등 Offshore 건설사업을 수행함
- 쿠웨이트 Al-zour LNG터미널 및 카타르 LNG터미널 등 프로젝트 수행실적 보유함
- 향후 LNG터미널 관련 사업 수행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인도) H社

○ 협의내용 :

- 인도 기반 LNG사업 Developer로 2019년 4분기 J지역에 첫 LNG 터미널 준공 예정이며, K, A 및 K 지역에 2022년까지 3개의 LNG 터미널이 준공예정임
- K 터미널의 경우 초기 FSRU 설치 및 추후 Onshore 터미널로 변경 (저장능력 180,000m³ 규모)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공사의 사업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FEED 수행중으로 '20년 1월 상세설계 입찰 예정임

□ 기타 국내·외 관련회사

- (국내) K社 (하○○ 대표 외)
- (국내) P社 (이○○ 그룹장 외)
- (국내) G社 (최○○ 상무 외)
- (국내) M社 (최○○ 상무 외)
- (중국) Z社 (B○○, General Manager 외)
- (중국) Z社 (J○○, General Manager 외)

-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Gastech 2019에 참석하여 각국의 에너지분야 전문가와 면담 및 전시관 방문을 통해 우리공사 주요사업 및 기술력을 홍보하였고,
- 참여업체와의 정보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관련 사업 참여 기회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영업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 가스산업분야 세계 3대 행사인 Gastech 2019에 우리공사의 부스가 없어 우리공사의 기술력을 홍보하는데 많은 제약과 아쉬움이 있었으며, 금번 Gastech 2019에서 KOGAS 부스내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한 KC LNG Tech처럼 향후에는 KOGAS의 협조를 통해 우리공사의 부스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